

파견기간	2022년 1학기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소속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 학과
파견국가	독일		성명	강채림
파견대학	<b>Technische Universität Hamburg</b>			

## I. 개요

### 1.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제가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정하게된 이유는 코로나가 터진 후 지속된 비대면 수업과 반복되던 일상에 지루함을 느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얻기 위해서 였습니다. 또한 한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학생들의 대학 생활 문화와 대학교의 다른 수업 방식을 경험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2. 파견 지역/대학 선정 이유

유럽 여행을 목적으로 교환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유럽 중심에 위치해 있는 독일에 있는 대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이 공대로 유명하고 저의 전공과 관련하여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수업을 들으면 저의 학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대학 중 함부르크 공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독일에 있는 대도시(뮌헨,베를린,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부르크 공대는 함부르크 도심에서 벗어난 ‘하부르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Hbf(중앙역)을 가는데 2-30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 3. 파견 지역/대학 소개

함부르크는 독일 북부에 있는 독일 최대의 항구 도시이자 제2의 대도시입니다. 또한 함부르크는 북해 연안에서 독일 최대의 항구이고 엘베강 또한 위치해 있어 아름다운 광경과 도심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함부르크는 강과 공원이 많아 자연이 아름답고 어린 인구도 많아서 도심지역도 즐길 거리가 많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함부르크 공과대학교(TUHH)는 2018년까지 함부르크 하르부르크 기술대학(Hamburg Technical University of Hamburg-Harburg)으로 불렸으며 독일의 Technical University 중 하나입니다. TUHH는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독일에 다른 TU에 비해 짧은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립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International Master Program과 유럽의 파트너 대학들과 공동 진행되는 교육과정 등으로 독일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학교는 함부르크 하부르크(Harburg) 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 4. 파견 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 부서 이름 및 연락처

Annabell Jäger- First point of contact for incoming & outgoing students

Office Address:

Am Schwarzenberg-Campus 3, D-21073 Hamburg

Building E, Room 0.058

Office hours: Mo. 10:00-12:30, Tue. 13:00-16:00 (by phone) Thur. 13:00-15:00

Phone: +49 40 42878 - 2987

E-mail: [internationaloffice@tuhh.de](mailto:internationaloffice@tuhh.de)

## II. 출국 전 준비사항

### 1. 비자 신청 절차

독일의 경우 쉥겐 조약으로 한국인은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독일에 가서 90일이 지나기 전에 비자를 신청하고자 무비자 상태로 출국하였습니다. 출국 후 준비 단계에서 언급하겠지만 독일 서류 처리가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가능하면 한국 독일 대사관에서 미리 비자를 발급받아 오는것을 추천합니다.

### 2. 장학금 지원 절차

공과대학 주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서나 심사없이 지원이 보장되며 필요한 서류들만 일정 안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주십니다. 교환 학생으로 선발된 후에 공과대학 주관 교환학생 지원금 안내 관련 메일을 보내 주시니 잘 참고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기숙사 신청 및 TUHH 준비사항

TUHH 관련 준비사항은 TUHH에서 보내주는 메일대로 따라서 준비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보내주는 웹사이트에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미리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학업계획서, 어학성적, 각종 증명서 등)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니 메일과 웹사이트를 따라서 진행하면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숙사 신청 또한 합격 후 학교에서 보내주는 안내 메일을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은 다 기숙사를 신청하면 배정 받는 것 같지만 기숙사에 자리가 없어서 따로 방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니 최대한 빨리 기숙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는 함부르크 안에 분포 되어 있고 TUHH 학생들은 보통 하부르크 주변인 (bunatwiete 6, Schüttstraße %, Triftstraße 102, Neuwiedenthal) 기숙사로 배정 받는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매달 340 유로씩 지불하였고 5개의 개인실과 하나의 주방과 두 개의 화장실을 공유하는 구조였습니다.

### 4. 국외수학허가 신청

서울대학교 관련 준비 사항으로 교환을 오기 전 mysnu 포털에서 국외수학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환교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수업을 신청할때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III. 출국 후

#### 1. 생활 준비

##### 1.1. 안멜등(Anmeldung)(거주지 등록)

먼저 기숙사에 도착하면 담당자분께서 계약서를 줍니다. 그럼 이 계약서를 들고 안멜등(거주지 등록)을 하면 됩니다. 안멜등 신청은 함부르크 웰컴 센터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잡고 방문할때 여권, registration form (저는 따로 출력 안하고 가서 채웠습니다), Wohnungsgeberbestätigung과 12유로를 내고 거주지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 1.2. 계좌개설

원래는 독일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 슈페어콘토라고 거주기간에 맞는 최소 생활비를 입금해두고 월마다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 지역마다 비자 발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슈페어콘토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일반 계좌를 개설하여 거기에 체류하는 기간에 맞는 최소 생활비를 입금해두고 재정 증명을 위해 은행 어플에서 Bank Statement를 프린트하여 비자청에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체류 기간 중 한국의 카카오뱅크와 유사한 온라인 은행인 N26를 이용하였습니다. 온라인 은행이다 보니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다른 은행에 비해 쉽고 카드가 나오기 전에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 1.3. 공보험 가입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사보험이 아닌 공보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TK 혹은 AOK 중에 신청하면 됩니다. 공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거주증명서, 입학증명서, 독일계좌를 필요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TK를 신청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절차를 끝내기 위해서는 독일에 있어야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학교에 있는 TK 사무소에서 가입을 마쳤습니다. 공보험이 비싸지만 여성분의 경우 자궁경부암 주사 또한 포함이니 맞고 가면 좋을것 같습니다. 독일에 병원 예약을 위해서는 doctolib같은 온라인 사이트를 사용하면 원하는 전문의와 위치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주사(HPV impfung)를 맞을 계획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예약을 잡아야 3차까지 맞고 갈 수 있습니다.

##### 1.4. 학생비자 발급

비자 (residence permit) 신청을 위한 테어민은 함부르크 웰컴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학교 정식 입학증명서, 거주증명서, 재정증명서(Proof of financing (861€ per month or 10,332€ per year)), 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은 Immigration authority나 Hamburg Welcome Cente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이민자 급증으로 인해 비자 테어민이 아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Hamburg Welcome Center에 테어민 없이 영업시작 시간 전에 몇번 방문해서 문의한 결과 스티커 비자를 발급해줬습니다. 저와 같이 비자 테어민이 안 잡히는 경우에는 지역 이민청 (Kundenzentrum Harburg)과 Hamburg Welcome Center를 둘다 직접 방문하여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쉥겐 조약 90일이 지나고 무비자인 상태이면 다른나라로 여행이 어려우니 미리 비자 신청을 하고 받거나 웰컴센터에 문의하여 여행 티켓을 보내주면 임시비자를 발급 받아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 2. 현지 물가 수준

함부르크는 독일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만큼 외식 가격은 높은 편이지만 마트 물가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비해 빵, 유제품, 과일, 채소 등이 매우 저렴해서 요리해 먹기 좋았습니다. 일요일에는 독일 모든 마트랑 가게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필요한 것들을 사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리해 먹기 귀찮은 날에는 터키 음식인 도너케밥을 많이 사먹기도 했습니다 (가격은 보통 5-6유로 정도. 일요일에도 영업). 학교에 수업이 있는 날에는 멘사(학식)를 사먹었는데 가격은 보통 4유로 정도 나왔습니다.

### 3. 여행

저는 교환학생 기간 동안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영국과 독일 내 베를린, 뮌헨, 뒤셀도르프, 쾰른, 본, 슈투트가르트, 브레멘 등 다양한 소도시를 여행 갔다 왔습니다. 함부르크가 독일 북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덴마크와 암스테르담 같은 북유럽 지역들은 플릭스기차/버스 혹은 기차(DB)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이 함부르크에서 가까운 나라들과 독일 내 도시들은 보통 플릭스버스 혹은 독일기차(DB)를 이용했고 거리가 있는 다른 나라들은 Ryanair와 Easyjet 같은 저가항공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함부르크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적기 때문에 베를린 혹은 프랑크푸르트 등 주변 도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럽 내 대부분의 나라들은 애플페이 및 카드 사용이 잘 되어서 여행 시 현금보다 카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 3.1. 여행 및 생활에 도움 되었던 앱

Omio (기차, 버스, 비행기 가격 비교 앱), DB Navigator (독일 기차 스케줄 확인 및 티켓팅을 위한 앱. 구글맵에 기차 상황이 업데이트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본 앱으로 여행 시 기차 스케줄 확인하는 것을 추천), Moia (함부르크 우버 택시 앱. 함부르크는 교통수단이 매우 잘 되어 있고 금토일에는 지하철이 24시간 운행하기 때문에 택시 탈 일이 없었으나 만약에 택시가 필요하면 함부르크 일반 택시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본 앱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 Whatsapp (유럽 카카오톡), StradtRAD (함부르크 자전거 이용 앱), CovPass (유럽 코로나 패스. 약국에 코로나 백신 증명서를 들고 가면 발급받아 줍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코로나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FlixBus (Omio에서 FlixBus를 예매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플릭스 버스 앱에서 직접 예매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 4. 귀국 준비 절차

#### 4.1. Abmeldung

아멜등은 앞에서 언급한 안멜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거주지 등록을 취소하는 일입니다. 안멜등과 달리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국 7일전에 필요 서류들을 함부르크 웰컴 센터에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 4.2. Moving-out Form

기숙사 Compass Team에서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 Move-Out Form 관련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럼 메일을 참고하여 기숙사 퇴거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거 확인은 따로 Property Manager한테 메일을 보내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 IV. 학업

### 1. 수강신청

먼저 TUHH측 입학 절차를 진행할때 Learning Agreement를 한국에서 미리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데 여기에 계획하는 수업은 개강 후 수업이 열리지 않거나, 수강인원이 다 찼거나, 시간이 맞지 않거나 등에 다양한 이유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충 계획을 짜도 괜찮습니다. 개강 후 Tune(수강신청 사이트)과 Studip (서울대학교 etl와 같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신청한 수업은 exam registration 전까지는 정식으로 신청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신청하고 나중에 원하는 수업들을 exam register 하시면 됩니다. Exam register이 끝난 수업은 추후 TUHH측에서 보내는 Changing Learning Agreement 메일을 참고하셔서 수학계획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 2. 학습방법

독일 대학은 강의기간과 시험기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험기간이 한국 대학 개강일을 넘기 때문에 TUHH에서 듣는 수업들의 시험 날짜를 미리 확인하시고 만약에 시험날짜가 넘어가면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내면 온라인 시험을 보게 해주거나 미리 시험을 보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들은 수업들은 대부분

그룹프로젝트 발표와 리포트로 채점을 하였고 별도의 시험은 없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영어 석사 수업들은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편안하고 재밌는 분위기의 수업들이 많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공학적 그리고 기술적 접근이 아닌 현실성을 떨어질지라도 조금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 3. 어학성적

함부르크 공대 교환 지원시 독어 성적 없이 영어시험(토플 및 아이엘츠) 성적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TUHH에서는 대부분의 학부생 수업들이 독일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부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독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석사 수업들과 Non-technical courses(교양수업)들은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독어 성적 없이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석사 수업들은 다른 전공 과목에 비해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학부생들도 듣는데 부담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4. 독일어 수업

독일어 수업은 TUHH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제공해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따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업은 본인의 독일어 수준에 따라 나뉘는데 저는 기초반인 A1.1. 독일어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독일어 선생님도 매우 친절했고 생활하면서 독일어도 많이 접하다 보니 독일어 수업을 듣는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5개월의 기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저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졸업을 앞두고 교환을 오는 게 취업과 졸업준비를 하는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 걱정이 컸습니다. 교환을 하는 중에도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의 소식을 들으면 교환을 와서 여행을 다니고 있는 제 결정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 교환을 와서 경험한 새로운 것들과 만난 새로운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경험해 보지 못했을 추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환을 오기로 결정했던 제 자신의 급작스러웠던 선택에 감사합니다. 나아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본 기회를 잡아서 오기를 추천드립니다.